“...그럼 이걸로 오늘 학생회 활동은 끝. 다들 조심해서 돌아가.”

각자 헤어졌다 다시 모인 학생회실.

오늘도 어김없이 은혜 선배의 마무리 대사로 학생회 활동이 끝났다.

매번 듣다 보니 이젠 저걸 안 들으면 학생회 활동이 끝나지 않은 기분이다.

이제 학생회도 끝났으니 나도 가방 챙기고 집에 가야...

“그럼!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내일 봐요!”

그새 준비를 끝낸 채아람이 쏜살같이 학생회실을 빠져나갔다.

항상 제일 빨리 나가던데. 집이 멀어서 그런가?

아니지. 어쩌면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다.

학생회 활동까지 포함하면 종일 학교에 있는 거긴 하니까.

나는 집보단 밖이 편해서 불만은 없지만.

“저도 가보겠습니다.”

꾸벅 인사를 하고 나도 학생회실을 빠져나왔다.

...

가로등이 켜진 골목을 따라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미지와 마주치지 않으려면 큰길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지만, 그러면 너무 빙 돌아가야 한다.

가로등 불빛만 있어도 미지는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게 그나마 빠른 귀갓길이다.

단점이라면 조금….

으스스하단 걸까.

시간이 시간이다 보니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빛이라곤 가로등이 끝이라 분위기가 무섭다.

밝은 곳에는 미지가 안 나온다는 걸 알지만 왠지 나올 것만 같은 기분.

으으. 빨리 집에 가야지.

“...응?”

발걸음을 서두르는데 골목 어디선가 타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발과 땅이 부딪히는 가벼운 발소리. 하지만 내가 낸 소리가 아니다.

골목 저편에서 타닥타닥 박자를 맞춰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마치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처럼 같은 곳에서 계속 뚜벅거리며.

뭐지? 미지인가?

아니.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미지일 리가 없지.

그럼 저 소리는 누가 내는 걸까.

...확인만 해보자.

꺾여져 있는 골목 뒤쪽. 나는 호기심에 이끌리듯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그곳에선

“하아... 하아....”

채아람이 춤을 추고 있었다.

팔을 하늘로 뻗고, 몸을 꺾고, 바닥을 박차고 날아오르듯 움직인다.

발레 같은 부드러운 무용이 아닌, 군무처럼 느껴지는 힘 있는 춤.

채아람은 밤의 가로등을 조명 삼아 동작을 펼치고 있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채아람의 표정은.

“하나. 둘. 셋. 넷.”

여태껏 본 적 없을 정도로 진지했다.

누구도 보고 있지 않은데도. 수많은 관객이 보고 있는 것처럼.

채아람은 장난기 없이 춤을 추고 있었다.

입으로 세는 박자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평소엔 지은 적 없던 표정을 동작에 맞춰 지어낸다.

“......”

그렇게 달밤에 춤을 추는 채아람의 모습은 꿈속의 광경처럼 느껴져서.

나는 홀린 듯이 자리에 멈춰서 그 춤을 바라보고 말았다.

...

“...하아. 하아.”

화려한 턴 동작을 마지막으로 채아람은 춤을 멈췄다.

“아직…. 잘 안 되네.”

“한 번 더 연습해야겠다.”

채아람이 다시 연습을 시작했을 때, 나는 조용히 그 골목을 떠났다.

채아람은 왜 여기서 춤을 추고 있던 걸까.

왜 그렇게 진지한 얼굴로.

그것도 혼자서.

...

어쩐지 신경 쓰이는 것들을 뒤로하고 나는 집으로 향했다.